

## 두 겹으로 증폭된 “말할 수 없음”을 일깨우기

— 해리엇 제이콥스의 『노예소녀의 삶에 일어난 사건들』

김 이 은\*

###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침묵을 강요당한 노예여성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서 노예제에 대한 충실한 묘사를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침묵이 지닌 의미를 독서대중과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단순한 피해자로 전락하기 보다는 주인의 끊임없는 성적인 접근에 대해 기지 넘치는 말대답을 보여주었던 브렌트의 활력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고 이로 인한 서술의 모호함을 수반한다. 본고는 이러한 균열이 단순히 그녀의 수치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에서 ‘말할 수 없음’을 더욱 강조하는 장치로 기능함을 살펴볼 것이다. 제이콥스는 여성노예로서 겪어야 했던 치욕적인 경험들을 기록함으로써 감히 들여다볼 수 없었던 포장된 남부 가정의 기이하고도 잔인한 행태를 전달해준다. 그러나 제이콥스의 위

\*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강사

주제어: 해리엇 제이콥스, 노예제, 노예서사, 침묵, 말할 수 없음, 『노예소녀의 삶에 일어난 사건들』

Harriet Jacobs, slavery, slave narrative, silence, unspeakableness, *Incidents in the Life of a Slave Girl*

대함은 역사적인 사료보다 더 진실에 가까운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적나라하게 그려낸 노예제의 핵심을 독자는 여전히 모를 수도 있다는 자각을 일깨운 점에 있다. 노예들이 겪는 끔찍한 신체적인 고통에 더해 그들에게 허락된 언어로는 표현되지 않는 극단적인 절망감과 모멸감의 심연은 그녀의 필력으로는 끝내 전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이콥스는 백인 독자가 흑인 작가로부터 온전하게 듣지 못해 의심하게 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노예의 복잡한 내면을 읽어주길 요청한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오랜 시간이 지나 사료와 기록을 통해 노예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21세기의 독자들에게도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온전하게 알 수 없는 노예제와 노예의 삶을 연구과제로 남겨준다.

## 1. 들어가며

21세기의 독자들에게 19세기의 노예제도는 피부 색깔에 따라 백인이 흑인보다 우월하다는 근거 없는 잣대로 인간의 노동력을 착취한 가장 잔인한 제도이다. 그리고 소위 ‘열등한’ 인종의 억압과 착취 위에 미국의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이 함께 연루된 이른바 면화 왕국이 세워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스탬프(Kenneth M. Stampp)에 따르면 노예제는 어떠한 인간적인 교감이나 애정이 근본적으로 차단된, 단지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자본주의의 악랄한 한 수법일 뿐이다. 따라서 인간을 소유물로 보는 주인들에 대해 노예들 역시 끊임없이 방화, 자살, 공격, 반역을 통해 주인과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한다.<sup>1)</sup> 그러나 이처럼 명백하게 자본주의를 위한 도구로 사용된 남부의 노예제가 실제로는 오랫동안 온정주의(paternalism)의 시각에서 평가되기도 한다.

1) Kenneth M. Stampp (1956), *The Peculiar Institution: Slavery in the Ante-Bellum South*, New York: Vintage Books, p. 136.

온정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노예제는 농장주와 노예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는 가부장제의 한 형식이다. 즉 노예제는 대가족의 한 형태로 주인은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애정과 훈육을 통해 노예들을 인간적으로 대하되 둘의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종속임을 분명히 한다는 것이다. “독특한 제도”(peculiar institution)로 불렸던 노예제는 19세기 당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미화되었고, 실질적인 노예제 연구에 있어서도 백인중심의 진술에 의존해왔다. 본격적인 노예사 연구를 시작한 인종주의자 얼리히(Philip Ulrich)의 『미국의 니그로 노예제』(*American Negro Slavery*, 1918)는 흑인들에 대한 잘못된 상투형으로 가득 차 있다. 즉 흑인 노예들은 유순하고, 근심 없고 유쾌하며, 기꺼이 복종하는 인종으로 묘사된다. 1950년대까지 대부분의 대학에서 노예제에 관한 교과서로 사용된 얼리히의 글은 노예제에 관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노예들의 진술과 글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백인이 쓴 자료만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는 한계를 지닌다.<sup>2)</sup> 따라서 그의 책은 스탬프처럼 노예제를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역사가와 1960년대의 흑인 인권운동가들에 의해 반박된다. 1970년대에 들어와 저명한 역사가 지노비스(Eugene Genovese)는 온정주의적 관점에 기반을 둔 노예제 해석을 다시 한 번 재생시키지만 이는 얼리히처럼 자애로운 가부장이 아니라 노예와 노예주 간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둔 것이다.<sup>3)</sup> 지노비스는 노예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공사태가 아닌 그들이 살았던 사회의 문맥에서 살필 것을 강조하는데, 이때 노예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인과의 관계가 중요해진다. 노예제는 인종 갈등보다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이라는 계층

2) Frances Smith Foster (1996), “Resisting Incidents.” *Harriet Jacobs and Incidents on the Life of a Slave Girl: New Critical Essays* (ed by Deborah M. Garfield & Rafia Zafar), New York: Cambridge UP, p. xvii.

3) Peter Kolchin (2004), “Eugene D. Genovese: Historian of Slavery,” *Radical History Review* 88, p. 56.

관계에 주목할 때 더 잘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노비스에 따르면 남부의 노예제를 지탱하고 노예로 하여금 규칙에 따르게 하는 것은 가정의 가부장이 구성원들에게 하듯 장려책과 강요이다. 이 두 가지 선택에서 노예들은 그들의 문화와 종교가 보존되는 흑인 공동체를 위해서 주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서 복종을 했다는 것이다.<sup>4)</sup> 노예제가 배태한 인종 간의 갈등 외에 지배층과 피지배층간의 계급갈등이라는 새로운 틀을 통해 노예제를 점검한 지노비스의 연구는 노예제를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노예제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 받는 노예들의 복잡다단한 삶을 어느 정도 축소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처럼 노예제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 가운데 19세기의 북부인들은 실질적으로 남부의 농장에서 벌어지는 노예제를 경험하지 못했고, 노예제가 시대착오적인 제도라는 사실에 공감할 수도 없었다. 당시에는 흑인이 인종적, 지적으로 열등한 종족이라는 사실이 정설로 인정되고 남부의 노예들은 오히려 농장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것으로 여겨졌다. 특히 백인 여행객이 남부를 여행하고 쓴 글들에서 노예들은 노예제에 만족한 “행복한 검둥이”로 묘사되었기 때문에 북부인들은 노예제를 온정주의적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었다.<sup>5)</sup> 게다가 흑인에 대한 비하, 악의적 표

4) Eugene Genovese (1974), *Roll, Jordan, Roll: The World the Slaves Made*, New York: Vintage Books, pp. xv-xvii.

5) 남부여행기가 포함된 『미국, 쿠바, 캐나다에서 온 편지들』(*Letters from the United States, Cuba, and Canada*, 1856)에서 영국인 머레이(Amelia Matilda Murray)는 자신이 남부를 방문하고서 이상적인 농장과 행복한 노예들을 보고 노예제 옹호자로 바뀌었음을 이야기한다. 당시 인기 있었던 이 글에 대해 제이콥스는 작품에서 직접 머레이를 언급하며 비판한다. 그녀가 영국을 방문했을 때 영국에서 가장 빈곤하고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만났지만 자신은 결코 머레이처럼 “장밋빛”으로 그들을 채색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노예제와 노예의 삶을 낙관적으로 그린 머레이의 왜곡된 시각을 언급한다(185). 또한 제이콥스가 실제로 뉴욕에 살 때 그의 고용주였던 윌리스(Nathaniel P. Willis)는 남부를 여행한 후 쓴 『열대로의 건강한 여행』(*A Health Trip to the Tropics*, 1853)에서 만족하며 살고 있는 노예들을 그리고 있다. Anne Bradford Warner (2008), “Harriet Jacobs at Home in *Incidents in the Life of a Slave*

현들이 “백인이 흑인흉내 내는 연극”(minstrelsy)을 통해 유폐되었기 때문에 흑인 노예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파비안(Ann Fabian)에 따르면 도망노예들이 행한 강연과 흑인을 가장한 백인 연극은 내용면에서 서로 상충되는데 후자가 흑인을 우스꽝스럽게 조롱하는 반면 전자는 흑인들이 글을 읽고 쓸 줄 알며 언변이 좋으며 노예제에 불만이 가득함을 강조한다. 물론 연극이 도시의 노동계층을 대상으로, 도망노예들의 강연이 조직화된 중산층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지만 실제로 북부인들은 유행하는 두 가지 양식을 통해서 흑인에 대해 상충되는 정보를 얻게 된다. 특히 연극은 흑인을 “잘 숙련된 거짓말쟁이”(a skilled liar)의 전형으로 그려놓음으로써 노예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믿지 못하게 만든다.<sup>6)</sup> 흑인에게 좀 더 열려 있는 북부의 백인들도 흑인들이 아무리 순진하고 믿을만해 보여도 그들은 이미 교정 불가능할 정도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성 글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이처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예제와 흑인 노예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미스터리”가 횡행한 가운데 도망노예들이 백인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들은 필연적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다.<sup>7)</sup> 특히 도망노예들이 쓴 노예서사는 노예제의 폐악을 생생하게 그려주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노예폐지론자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여타의 문학 장르와 달리 노예서사는 명확한 정치적인 목적 하에 활성화된 형식이기 때문이다. 노예서사는 “노예폐지론자들에 의해 권장되고 노예제 폐지를 위해 최대한 노예제의 폐단을 재현”함으로써 북부인들의 공분을 자아내어 더 많은 사람들이 노예제 폐지에 동참하게 하는 목적을 지닌다.<sup>8)</sup> 이처럼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

*Girl,” Southern Quarterly* 45.3, pp. 31-32.

6) Ann Fabian (2001), *The Unvarnished Truth: Personal Narratives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10-111.

7) Frances Smith Foster (1996), p. 64.

될 수 있는 노예서사는 더글러스(Frederick Douglas)처럼 문학적 재능과 확고한 자기 색깔을 가진 예외적인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노예폐지론자인 백인들에 의해 내용이 통제되고 변형된다. 노예서사가 노예들의 진실한 고백임을 강조해도 이러한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 백인 독자들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흑인 노예라는 인종적, 신분적 구속 외에 여성이라는 성적 정체성이 더해지면 백인독자로부터 받는 의혹은 더욱 증가된다. 당시 유행한 “감상주의 이데올로기”(sentimental ideology)는 이상적인 여성상을 만들어 냈는데 참된 여성성의 속성으로 손꼽히는 것은 복종, 정숙, 그리고 경건함이다.<sup>9)</sup> 따라서 인종에 상관없이 여성이 공식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연설하거나 글을 쓰는 것은 당대의 여성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것으로 그들이 일단 입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여성의 필수항목인 정숙함에 치명적이다. 일례로 버뮤다 출신의 프린스(Mary Prince)라는 여성노예가 그의 가족에게 돌아가기 위해 노예주로부터 팔리기를 희망하고, 노예폐지론자가 그녀의 이야기를 공론화하려 했지만 그녀의 노예 신분보다는 여성으로서의 인격, 성적 경험 등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그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 즉 노예여성의 경우 그녀의 서사가 신뢰받기 위해서는 성적으로 순결해야 하고, 일단 자신의 경험에 대해 입을 여는 순간 더 이상 그녀는 “희생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sup>10)</sup>

8) Karen E. Beardslee (1999), “Through Slave Culture’s Lens Comes the Abundant Source: Harriet A. Jacobs’s *Incidents in the Life of a Slave Girl*,” *African American Literature* 24.1, p. 37; James Olney (1985), “‘I was born’: Slave Narratives, Their Status as Autobiography and as a Literature,” *The Slave’s Narratives* (ed by Davis, Charles T. and Henry Louis Gates, Jr.), Oxford: Oxford UP, p. 154; Crispin Sartwell (1998), *Act Like you Know: African-American Autobiography and White Ident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40.

9) Gillian Brown (1990), *Domestic Individualism: Imagining Self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Berkeley: California UP, p. 101.

이처럼 노예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노예서사에 대한 의혹의 눈길, 흑인 여성노예에게 요구되는 침묵이 만연한 상황에서 발간된 제이콥스(Harriet Jacobs)의 『노예소녀의 삶에 일어난 사건들: 스스로 쓴 이야기』(*Incidents in the Life of a Slave Girl: Written by Herself*, 1861)는 주목할 만하다. 작품은 금기시되는 성적착취와 학대를 전면에 등장시킨 “최초의 여성노예작품”이고 “남부농장에서의 성적 타락에 대한 온전한 묘사”이기 때문이다.<sup>11)</sup> 물론 흑인 노예여성이 겪는 처참한 경험은 제이콥스 이전의 노예서사에서도 다루어졌지만, 그녀만의 독특한 점은 자신이 처했던 상황과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sup>12)</sup> 이전의 남성노예화자와 노예폐지론자들이 언급했던 성적 착취는 대개 흑인 여성노예가 수동적인 피해자라는 정형에 맞추어진 반면 브렌트는 비극적 여성이 되기보다는 주제넘을 정도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적극적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준다. 브렌트는 사회가 부여한 강요된 침묵을 따르기보다는 주인의 협박과 감언이설에 맞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상투형에 들어맞지 않는 여성노예이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사건과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때때로 독자의 의문을 자아내기도 하고, 당혹감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 초점을 두고 이 논문에서는 제이콥스의 서사가 보여주는 균열의 의미를 독서대중과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0) Xiomara Santamarina (2007), “Black Womanhood in North American Women’s Slave Narratives” *The Cambridge Companion to the African American Slave Narrative* (ed by Audrey Fisch), New York: Cambridge UP, p. 233.

11) Jean Fagan Yellin (1981), “Written By Herself: Harriet Jacobs Slave Narrative,” *American Literature* 53.3, p. 481; Bruce Mills (1992), “Lydia Maria Child and the Endings to Harriet Jacob’s *Incidents in the Life of a Slave Girl*,” *American Literature* 64.2, p. 255.

12) Andrews, William L. (1986), *To Tell a Free Story: The First Century of Afro-American Autobiography, 1760-1865*, Urbana: Illinois UP, 246.

## 2. 강요된 침묵과 노예여성의 말하기

남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끔찍한 노예제가 북부인들에게는 이상적이고 유익한 제도로 탈바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북부인들은 노예제를 경험하고 있는 노예들의 증언이 아니라 백인농장주들이 전해주는 포장된 남부의 삶만을 듣기 때문에 언제나 “평화롭고 풍요로운 농장”만을 보게 된다.<sup>13)</sup> 노예주들은 북부에서 온 여행객이든 새로 부임한 목사이든 노예들이 당하는 끔찍한 고문을 보여주지 않고 노예들 역시 질문을 받아도 그에 대해 “감히 말할 수 없다.”<sup>14)</sup> 따라서 제이콥스는 12년이 지난 과거의 사건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말을 하는 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미칠 파장을 염려해 가명인 린다 브렌트(Linda Brent)를 사용한다.<sup>15)</sup>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가명 뒤에 숨어야 하는 제이콥스의 상황은 노예가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그럼에도 브렌트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여성노예가 겪는 비인간적인 삶이 자행되는 가장 은밀한 영역인 남부의 농장주의 가정으로 독자를 인도한다. 브렌트는 미국의 노예제를 장밋빛으로 채색해 그려낸 머레이같은 여행객은 결코 알 수 없는 ‘산 경험’에 기반을 둔 남부의 가장 내밀한 곳을 보여준다.

농장주인 남부인들에게 기꺼이 자신들의 딸을 시집보내는 북부인들이 결코 알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사적인 공간인 남부의 가정은 노예여성의 존재로 인해 기이한 모습을 보인다. 남부의 “꽃 같은 집”(flowery home)은 실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겁탈로 낳은 수많은 노예들로 가득하

13) Harriet Jacobs (1861), *Incidents in the Life of a Slave Girl* (ed. by Jean Fagan Yellin), Cambridge: Harvard UP, p. 37.

14) Jacobs (1861), p. 74.

15) 본고에서는 작품분석 시 작중인물인 린다 브렌트를 주인공의 이름으로, 작가의 역할과 분명한 작가적 목소리를 이야기할 때는 제이콥스로 구분해 사용하도록 하겠다.

고 언제든지 성적 노리개가 될 수 있는 여성은 자신의 하인이기도 하지만 남편의 관심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다.<sup>16)</sup> 이미 이러한 상황을 모두 알고 있는 남부의 여인들은 노예여성에게 심한 질투나 시기를 보이면서 남편의 외도로 태어난 아이들을 매매 가능한 자산으로 대한다. 정숙하고 자애로운 어머니와 그러한 어머니 밑에서 국가의 미래가 될 다음 세대가 양육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상적인 가정이 아무리 상찬되고 함양된다고 한들 노예제가 존재하는 남부에서는 현실불가능한 선전구호일 뿐이다. 이상적인 가정을 만들겠다는 당대의 국가적 목표는 노예를 질투하고 잔인하게 대하는 안주인에 의해, 그리고 부모의 치부를 바라보며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동시에 똑같이 잔인하고 욕정 가득한 노예주로 성장하게 되는 노예주 아들에 의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다.

실제로 여성노예는 성적으로 전혀 보호받지 못한 채 살아간다. 올스테드(Frederick Law Olmsted)에 따르면 노예여성은 13살이 될 때까지 변변한 속옷이 없어 중요한 신체적 부위가 드러나고, 노예경매장에서는 허리까지 벗겨져서 점검받고, 짐승의 짝짓기처럼 어떠한 의지나 감정도 없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 이성과 잠자리를 같이 해야 한다.<sup>17)</sup> 브렌트 역시 여성 노예가 스스로 정숙하길 희망하는 것 자체가 “범죄”이며 자신들은 단지 주인의 재산을 불려주는 “가축”, 또는 “숨 쉬는 기계” 정도에 불과함을 인정한다.<sup>18)</sup> 그럼에도 한 지붕 밑에서 살고 있는 주인의 끊임없는 성희롱은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치욕적이고 힘든 것이다. 주인의 성적 착취를 경험할 때마다 브렌트는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을 찾고, 실제로 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어한다. 하지만 “취죽은 듯이 조용하

16) Jacobs (1861), p. 36.

17) Frederick Law Olmsted (1953), *The Cotton Kingdom: A Traveller's Observations on Cotton and Slavery in the American Slave States. Based upon Three Former Volumes of Journeys and Investigations by the Same Author* (ed by Arthur M. Schlesinger), New York: Knopf. p. 164.

18) Jacobs (1861), p. 10; 31.

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는 협박을 당하고, “발설로 인한 호된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브렌트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다.<sup>19)</sup> 이처럼 피해자로서 착취당하고 분노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수치심과 죄책감에 휩싸이는 브렌트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허심탄회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노예주들이 여성노예들을 강간하고 그들이 낳은 자식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러나 노예들 사이에서는 은근한 수군거림으로 회자되듯이, 누구나 알고 있지만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주인과 노예 간의 성적인 관계이다.<sup>20)</sup>

노예제의 비밀은 종교재판의 비밀처럼 감추어져 있다. 내가 아는 한, 우리 주인은 11명이나 되는 노예들의 아버지이다. 그러나 어미들이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다른 노예들은 자신들끼리 수군거리는 것 외에 감히 슬쩍 암시라도 할 수 있겠는가? 결코 아니다. 그들은 그에 따르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The secrets of slavery are concealed like those of the Inquisition. My master was, to my knowledge, the father of eleven slaves. But did the mothers dare to tell who was the father of their children? Did the other slaves dare to allude to it, except in whispering among themselves? No indeed! They knew too well the terrible consequences.<sup>21)</sup>

---

19) Jacobs (1861), p. 28; 29.

20) 지노비스는 그의 책 『출렁거려라, 요단강, 출렁거려라: 노예들이 만든 세계』(*Roll, Jordan, Roll: The World the Slaves Made* 1976)의 한 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노예주와 여성노예 간의 강간과 성폭력은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기술된 측면이 있다. 사료에 따르면 노예주와 여성노예 간에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해방시켜 결혼을 하기 원하는 노예주도 많았으며, 어쩔 수 없이 노예들을 팔 때도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들의 안위와 평안을 걱정한 사례도 많음을 주장한다. Genovese (1976), pp. 413-431.

21) Jacobs (1861), p. 35.

노예주의 잘못된 행동들은 은밀하게 진행되고 이는 노예주뿐만 아니라 노예 자신의 침묵을 통해 영속화된다. 집안의 하인들 모두 “추잡한 관행”을 눈치채지만 그것들에 대해 발설하는 순간 벌을 면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sup>22)</sup> 같은 흑인 노예들끼리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 하에서 백인 남성은 흑인 노예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플린트는 브렌트에게 정부가 될 것을 몰래 제안하고, 자신의 외설스러운 편지는 읽자마자 바로 파기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정치적으로 덕망이 높은 많은 의원들도 그들의 “비밀 회고록”이 나온다면 호기심을 자아낼만한 이야기들을 쏟아낼 것이다. 일례로 한 의원은 자신의 물라토 자식을 친구들이 보는 것이 두려워서 6명이나 자식을 낳아준 노예에게 자신과 친구들이 방문할 때 자식들이 눈에 안 띄게 집밖으로 보낼 것을 요청한다.<sup>23)</sup> 노예들은 백인들의 체면과 명성에 걸맞지 않는 그들에 관한 비밀들을 품고 살아가지만 위선적인 노예주를 지켜주고 부당한 노예주를 영속화시키기 위해서는 노예들의 경험담은 결코 노예주의 가정, 농장, 그리고 남부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처럼 침묵을 강요받기에 노예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설명할 수 있는 매개체인 언어의 부재도 절감한다. 앤드루스(William Andrews)에 따르면 18, 19세기의 흑인들이 자서전을 쓰는 것은 “언어 찾기”로 통칭될 수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도 몰랐던 내면에 존재하는 “미지의 것”과 노예제 내에서는 “말해질 수 없는 것”을 표현할 언어를 탐색해야 한다.<sup>24)</sup> 실제로 흑인만의 경험인 노예제를 전달할 언어가 부재한 가운데 일상적인 언어들도 주인과 노예라는 관계 속에서 노예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 감언이 설로 피는 주인과 숨은 의중을 읽어내는 브렌트와의 대화는 언어라는 것이 지배층에 의해 얼마나 쉽게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22) Jacobs (1861), p. 28.

23) Jacobs (1861), p. 142.

24) Andrews (1986), p. 9.

예컨대 플린트가 “귀부인으로 만들어준다”라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되는 일이 자행될 뿐만 아니라 그가 사용하는 “관용”, “친절”과 같은 단어들이 결코 노예여성에게는 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sup>25)</sup> 특히 화가 난 주인이 그녀에게 퍼붓는 “노예들에게만 사용되는 그러한 언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밝혀지지 않지만 주인은 자신이 원하면 이미 개나 돼지 정도로 묘사된 노예에게 그보다 더한 언어를 만들어 낼 수 있다.<sup>26)</sup> 이처럼 지배자들은 마음껏 언어를 전유해 사용하는 반면 노예는 자신의 경험을 전달할 적합한 언어를 찾지 못해 고민할 뿐만 아니라 경험을 글로 옮기는 작업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정신적, 감정적인 투쟁임을 시사한다. 이는 노예들이 육체적, 성적인 착취에 더해 그들이 겪는 어떠한 고통과 절망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렌트는 침묵을 강요당하는 상황에서도 주인에게 독설과 재치로 기꺼이 말싸움을 감행한다. 장기윤의 지적처럼 브렌트는 당대의 독자들이 기대하는 유순하고 복종적이면서 어리석은 흑인의 정형이 아닌 지극히 “낮설고”, “비정형적인” 인물로 제시된다.<sup>27)</sup> 플린트가 처음으로 물리적 폭력까지 사용하며 분노를 표출한 사건은 브렌트가 흑인 자유인과의 결혼을 언급할 때 일어난다. 이전까지는 주인의 불순한 의도와 비속한 언어에 경멸감을 느끼면서도 속으로만 감내했던 브렌트는 처음으로 주인에게 노예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 자신처럼 높은 신분에 재력까지 겸한 백인 남성이 내놓은 제안을 수락하기는커녕 흑인 남성을 선택한 브렌트에게 플린트는 그녀의 연인을 개만도 못한 인간으로 비하한다. 이에 굴하지 않고 브렌트는 “그가 개라면 자신도 개일뿐”이라고 응수한다.<sup>28)</sup> 이 대목에서 스스로를 비하한 브렌

25) Jacobs (1861), p. 35; 40.

26) Jacobs (1861), p. 61.

27) 장기윤(2013), 『제이콥스의 『어느 노예 소녀의 삶에서 있었던 일들』 고딕으로 읽기, 『미국학논집』 45.3, p. 88.

트가 아니라 개와 동일한 인간에게 시간과 공을 들여 유혹하는 플린트가 한 순간에 우스꽝스럽게 되고 만다. 이처럼 신분이나 권력, 재력 등 모든 면에서 승산 없는 싸움임에도 자신의 의지로 그의 권력에 맞서겠다는 브렌트의 결의는 적재적소에 맞는 독설과 응수로 구체화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브렌트는 책략과 속임수를 통해 플린트의 위협에서 벗어난다. 특히 도주를 감행하고 나서 자신을 찾는 플린트의 동선을 고려해 북부가 아닌 남부의 지인 집에 숨어 있다거나, 플린트로 하여금 자신이 북부에 있다고 완전히 믿게 하기 위해 뉴욕의 소인이 찍힌 편지를 보낸다. 또 돌아오라는 간곡한 부탁이 담긴 브렌트의 실질적인 법적 소유자의 편지가 지닌 속내를 한눈에 간파한다. 노예의 입을 막고, 노예제를 영속시키기 위해 백인 소유주의 책략과 거짓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브렌트는 노예주의 말을 전혀 믿지 않고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긴다. 브렌트는 거짓말쟁이라는 흑인의 상투형을 차용하면서도 그것이 생존을 위한 전략일 뿐임을 보여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브렌트는 주인과 소유물의 관계도 역전시킨다. 살트웰(Crispin Sartwell)에 따르면 브렌트는 “응시의 대상”으로 주인에 의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는 소유물이다. 그러나 브렌트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숨어있지만 오히려 플린트를 응시의 대상으로 만든다.<sup>29)</sup> 도주한 브렌트는 동네의 백인여성의 집에 숨어서 자신의 행방을 전혀 모른 채 길거리를 다니는 플린트를 보고 그를 “속였다”(outwitted)는 생각에 승리감을 느낀다.<sup>30)</sup> 그리고 자신이 이처럼 정교하고 “교활해”지는 것에 대해 변명하기보다는 오히려 폭군의 힘에 대항해 약하고 압제받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교활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sup>31)</sup> 그러나 브렌트의 활력과 기지는 자

28) Jacobs (1861), p. 39.

29) Sartwell (1998), p. 54.

30) Jacobs (1861), p. 100.

31) Jacobs (1861), p. 101.

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고 이로 인해 서술의 모호함을 수반하게 된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는 단순히 그녀의 수치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에서 ‘말할 수 없음’을 더욱 강조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 3. 두 겹으로 증폭된 “말할 수 없음”을 일깨우기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스스로의 이야기”는 브렌트가 자신이 겪은 경험에 대해 직접 썼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스미스(Valeri Smith)는 1830-60대에 발간된 노예서사들은 이러한 부제를 달아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예폐지론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sup>32)</sup> 특히 백인 독자를 대상으로 쓰는 흑인 노예의 글은 어느 정도의 수위에서 백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읽을 만한 글로 서술할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되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서는 안 되는 사회적인 요구, 그리고 서술 가능한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합의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제이콥스의 글은 매끈하게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드러낸다. 침묵을 강요당하는 상황에서도 주인의 감언이설과 폭언에 재치와 독설로 맞선 당찬 브렌트가 정작 그녀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백인 남성과의 관계, 임신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그녀의 서사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앤드류스에 따르면 노예서사의 작가들은 일차적으로는 자신들이 겪는 고통의 깊이를 표현할 언어를 찾을 수 없음에 절망하고, 잠재적 독자인 백인들이 과연 노예제의 온전한 진실을 진정으로 원하는가에 대한 회의

32) Valerie Smith (1987), *Self-Discovery and Authority in Afro-American Narrative*, Cambridge: Harvard UP, pp. 9-10.

감 때문에 다시 한 번 절망한다.<sup>33)</sup> 노예의 삶은 인간이 아닌 하나의 소유물로 간주되는 남부에서도 피상적인 인도주의 차원에서 ‘타자’로 이해되는 북부에서도 제대로 이해받기 힘들다. 노예제를 통해 이익을 얻는 남부인들 뿐만 아니라 직, 간접적으로 노예제와 공모하고 있는 북부인들 역시 노예제의 본질과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부의 여성들은 당대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인 “진정한 여성성”에 근거해 브렌트가 털어놓으려는 흑인과 백인의 성적 관계, 혼외임신과 같은 소재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sup>34)</sup> 따라서 브렌트의 고민이 가장 잘 드러나는 대목은 샌즈(Sands)와의 관계에 대한 묘사에서이다.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땀을 들일뿐 독자의 양해만을 구하는 브렌트는 이 일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강조한다. 그녀의 말하기는 단순히 사실전달을 넘어 말할 수 없는,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전하는 일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sup>35)</sup>

그런데 힘들게 꺼낸 백인 남성과의 관계에 대한 묘사는 의외로 두 단락밖에 되지 않는다. 플린트라는 악덕 백인 노예주에 비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그”는 노예에게 동정을 표할 줄 알고 자신의 신분이나 권위로 브렌트를 통제하지 않는 백인 남성이다. 15살이라는 어린 나이, 주인

33) Andrews (1986), p. 17.

34) 린다 브렌트가 백인 사회가 요구하는 정숙, 순결, 복종과 같은 여성성이 아닌 흑인 노예가 처한 현실에 기반을 둔 독립적인 여성성, 모성을 창조한 것으로 보는 국내 연구로는 여재혁과 김민정이 있다. 두 연구는 흑인 노예인 브렌트가 이루어낸 성과를 세밀하게 살펴보지만 여성이라는 면에 치중한 나머지 또 다른 여성인 백인독자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않고 있다. 여재혁(2003), 『“진정한 여성성”이란 무엇인가? 흑인 여성 노예의 “여성성”: 해리엇 제이콥스의 『흑인 여성 노예의 삶에서 생긴 사건들』을 중심으로』, 『현대영미소설』 10.2, pp. 197-217; Kim, Min Jung (2011), “The Troubled Discourse of Motherhood in Harriet Jacobs’ *Incidents in the Life of a Slave Girl: Written by Herself*,” *American Novels* 18.3, pp. 52-67.

35) Jacobs (1861), p. 53.

의 박해, 안주인의 질투, 그리고 마을의 가십거리가 된 브렌트는 처음으로 그녀의 말을 들어주고 동정을 표할 뿐만 아니라 기꺼이 도움을 주려 하는 백인 미혼남성을 만나게 된다. 그는 “끊임없이” 브렌트를 볼 기회를 만들고 “자주” 편지를 쓰며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브렌트의 온전한 신뢰를 이끌어 낼 정도로 “달변인” 사람이다.<sup>36)</sup> 이 대목에서 브렌트는 자신이 그를 유혹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가 적극적으로 다가왔을 뿐만 아니라 어린 노예소녀에게 유려한 언변을 사용해 마음을 흔들리게 했음을 암시한다. 이처럼 백인 남성과의 관계를 묘사할 때 두드러지는 것은 브렌트의 감정이 최대한 자제된다는 것이다. 브렌트가 그의 관심에 대해 느끼는 것은 감사함과 우쭐함, “부드러운 감정” 정도이다.<sup>37)</sup> 이는 앞서 결혼까지 생각했던 흑인 자유인과의 관계를 묘사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브렌트는 그와 “서로 애정을 나누며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지만” 자신에 대한 플린트의 병적인 소유욕 때문에 결국 그를 놓아주어야만 했고, 그로 인해 얼마나 힘들었는지와 같은 감정의 굴곡들을 잘 전달해 준다.<sup>38)</sup>

그러나 꼭 밝혀야 하지만 너무나 민감해서 독서대중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노예여성과 백인 남성 간의 관계에 대해 그 남성의 진심이 무엇인지, 둘의 상호 교감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브렌트는 침묵한다. 다만 자신처럼 철저하게 고립되고 비참한 상황에서 유일한 돌파구였던 것이 그와의 관계뿐이었음을 부각시킨다. 특히 이 대목에서는 지금까지 사악하고 잔인하게 묘사된 주인 플린트가 아니라 바로 노예제가 “악마”, “괴물”로 지칭된다.<sup>39)</sup> 브렌트는 수치스러운 관계의 원인은 주인의 강압이나 자신의 무지가 아닌 “노예제의 영향”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단순히 플린트와 같은 사악한 노예주 한 사람이 아니라 남부전역에 편재한 노예제 자체

36) Jacobs (1861), p. 54.

37) Jacobs (1861), p. 54.

38) Jacobs (1861), p. 37.

39) Jacobs (1861), p. 54.

가 문제임을 분명히 한다. 흑인, 백인 모두를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노예제는 자신과 같은 성적 피해자를 무수히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자신과 샌즈와의 관계를 당대의 지배적인 진정한 여성성이 아니라 노예제의 틀 안에서 봐줄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한다.

변명조로 샌즈와의 일을 모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생겨난 독자의 궁금증은 플린트와의 언쟁 속에서 해소된다. 이때도 브렌트는 샌즈에 대해 남아있는 일말의 애뜻한 감정보다 임신 선포가 플린트에게 가져다준 당황함을 보고 느낀 승리감이 컸음을 강조한다.<sup>40)</sup> 이후에도 샌즈는 브렌트의 동생 윌리엄을 하인으로 부리며 친절하게 대하고 아이들을 지긋지긋한 플린트에게 구매하여 주지만 브렌트가 완전히 신뢰하고 의지할만한 낭만적인 구원자로서의 백인 남성은 아니다. 플린트보다는 훨씬 관대한 사람이지만 브렌트의 기대처럼 자식들을 기꺼이 해방시켜주는 아버지도 아니다. 브렌트는 엘렌을 돌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쓰지 않는 샌즈에 대해 자신과의 관계를 “쓰레기”처럼 버렸다면 실망한다.<sup>41)</sup> 결국 샌즈는 아이들을 해방시켜준다는 약속도, 엘렌을 교육시켜준다는 약속도 제때에 지키지 않음으로써, 브렌트가 3대째 경험한 백인 노예주에 의한 배신을 재현하고 있을 뿐이다. 샌즈는 할머니, 이모, 그리고 브렌트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노예와의 약속을 자신들이 편리한대로 언제든 반복하고 배신으로 갚은 백인 노예주와 오버랩된다.

그런데 여기서 의아한 점은 첫 아이를 낳고 플린트의 엄격한 감시 하에 브렌트가 어떻게 샌즈의 두 번째 아이까지 낳을 수 있었느냐라는 사실이다. 샌즈의 첫 번째 아이를 임신한 엄청난 사건을 고백한 후 브렌트는 다음 두 장에서 독자가 궁금해하는 이후의 사적 경험보다는 오히려 네티너(Nat Turner)의 반란에 대한 이웃의 반응과 종교와 노예라는 사회적 상황을 묘사한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왔을 때, 아이로 인

40) Jacobs (1861), p. 55.

41) Jacobs (1861), p. 142.

해 플린트로부터 말할 수 없는 박해와 모멸감을 당한 브렌트가 어떻게, 왜 샌즈와 관계를 맺었는지는 빠진 채 “또 다시 엄마가 될 것이다”라는 간략한 통보만 해줄 뿐이다.<sup>42)</sup> 갑작스러운 임신 사실은 앞서 자책하며 참회하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플린트만큼이나 독자를 당혹스럽게 만든다.

사실 이런 당혹감은 공격적으로 나오는 주인의 성적 착취를 힘없는 노예소녀가 과연 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느껴온 것이다. 여러 가지 증거를 들어 브렌트가 주인에게 강간당했음이 확실함을 주장하는 폴만(P. Gabrielle Foreman)에 따르면 브렌트가 샌즈를 끌어들이는 것은 그녀가 플린트의 아이를 가졌다는 절박한 위기의식 때문이다. 자신의 아기를 뱀 여성노예들을 팔거나, 아니면 아기와 엄마를 억지로 떼어 놓았던 플린트의 이전 행적을 볼 때 그녀에게 절실한 것은 플린트의 성적 접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플린트와의 관계에서 태어날 아이를 지켜내고 자신처럼 살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일촉일발의 위기상황에서 브렌트는 샌즈를 끌어들이 수밖에 없었고 그를 통해서만 아이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을 기대하게 된다.<sup>43)</sup> 폴만의 지적은 성폭행의 진위여부를 떠나 노예여성의 글이 독서대중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층위로 해석될 수 있음을 일깨우고 브렌트의 말에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효하다. 특히 두 번째 임신에 대해 플린트는 “어떤 펜으로도 묘사할 수 없는, 할 수 있어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저속하고 역겨운 말들”을 퍼붓는다.<sup>44)</sup> 서로 간에 극단적인 감정이 오가는 상황에서 브렌트는 두 번째 과오를 저지르기까지 겪었던 심경이 무엇이었는지, 플린트가 뱀어내는 끔찍한 말들이 무엇인지를 기록하지 않

42) Jacobs (1861), p. 77.

43) Gabrielle Foreman, P. (1996), “Manifest in Signs: The Politics of Sex and Representation in *Incidents in the Life of a Slave Girl*,” *Harriet Jacobs and Incidents on the Life of a Slave Girl: New Critical Essays* (ed by Deborah M. Garfield & Rafia Zafar), New York: Cambridge UP, pp. 76-80.

44) Jacobs (1861), p. 77.

는다. 중요한 장면에서 이처럼 말을 아끼는 브렌트로 인해 독자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궁금해 할 수밖에 없다.

작품 전체에 넘쳐나 있는 노예들의 처참한 삶에 대한 묘사는 독자로 하여금 노예제의 실상을 충분히 보게 해주고 결과적으로 노예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준다. 하지만 제이콥스가 덧붙인 작품의 제문(epigraph)에 따르면 북부인들은 노예제하에서 노예들이 겪는 “모멸감의 깊이”에 대해서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한 예로 브렌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고미 다락방에서의 삶은 백인 독자들에게 다른 노예들의 운명에 비해 “쉬운”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sup>45)</sup> 빛도 공기도 구멍도 틈새도 없이 쥐와 벼룩만 득실대는 밀폐된 고미 다락방, 움직이는 인간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도 없어 수족을 불구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열악한 공간에서의 삶이 북부의 여성들에게 쉬운 것으로 간주될 것을 브렌트는 알고 있다. 왜냐하면 적어도 숨어있는 동안 그녀는 “혹독한 노동에 시달린 적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갗이 찢겨 나갈 정도로 채찍에 맞은 적도, 돌아 눕지도 못할 정도로 멍이 들게 맞은 적도, 사슬로 통나무에 몸이 묶여 밤새 통나무를 끌며 발일을 한 적도, 도망가지 못하게 인대를 잘린 적도, 인두에 의해 몸이 지쳐진 적도, 사냥개에 물린 적도 없기 때문이다.”<sup>46)</sup> 누군가는 지금도 당하고 있을 이런 무시무시한 고문에 비해 암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숨어 지내는 삶은 육체적으로는 “쉬운” 것일지 모른다.

백인여인들이 자신의 삶을 쉬운 것으로 볼 것이라는 브렌트의 생각은 백인독자와 노예여성 간에는 결코 메꿀 수 없는 간극이 있다는 절망적인 인식에서 비롯된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 백인들은 한걸음 물러서서 분노하고 동정을 표할 수는 있지만 흑인여성이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당하고 죽음보다 더한 심리적 공포, 아이들과의 생이별로

45) Jacobs (1861), p. 144.

46) Jacobs (1861), p. 115.

인해 좌절된 모성에 때문에 겪는 깊은 절망은 차마 들여다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녀가 속한 사회는 샌즈와의 관계를 엄청난 치욕거리로 비난하고 브렌트가 그토록 끔찍하게 여기는 플린트와의 관계는 용인해주는 곳이다. 브렌트의 혐오와 미움, 벗어나고자 하는 절박함과 상관없이 그녀에게 암묵적으로 허락된 관계는 플린트의 성적노리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노예여성도 엄연한 인격체로서 인간적인 감정과 분노, 절망을 느끼고 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한 백인여성들에게 끔찍한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고통일 뿐이다.

브렌트는 이미 노예의 삶을 옥죄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 이상의 것임을 암시한 바 있다. 4장인 『감히 인간처럼 느끼는 노예』에서 드러나듯 노예가 인간이기를 바라는 것은 단순히 혹독한 육체적인 고문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브렌트의 동생 윌리엄(William)은 어린 주인의 비겁함과 속임수에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이용당하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채찍질로 아픈 상처는 괜찮지만 채찍질을 당한다는 생각이 싫음을” 고백한다.<sup>47)</sup> 윌리엄이 아무리 어리다 해도 그는 맞아서 생긴 아픔보다 자신의 의지대로 올바른 일을 할 때 주인의 매질이 있으리라는 심리적인 압박이 더 모욕적이고 견뎌내기 힘든 것임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신적인 불안감, 모욕을 경험하지 못한 독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절절하게 경험한 브렌트 역시 필력의 한계로 인해 노예제의 끔찍함을 글로는 옮길 수 없다. 묘사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고두(Teresa Goddu)의 지적처럼 그녀가 반복적으로 노예제의 참상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펜이 그 끔찍함을 담아낼 수 없음을 의미한다.<sup>48)</sup> 따라서 그녀가 끊임없이 필력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은 교육받지 못한 그녀가 보여주는 단순한 겸양이나 수사학적 책략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노예제의 끔찍함을 아직도 다 쓰지 못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47) Jacobs (1861), p. 19.

48) Goddu (1997), p. 145.

그렇다면 그녀가 쓰고자 하는 노예제의 극한적 고통과 모멸감은 과연 서술 가능한 것인가? 작품의 편집과 출간을 담당한 백인 노예폐지론자인 차일드는 제이콥스의 이야기를 통해 숨겨진 노예제의 실상을 덮고 있는 베일을 벗겨내고자 한다.<sup>49)</sup> 그녀는 제이콥스가 한 꺼풀 감싸고 있는 베일을 벗겨내고 노예제의 끔찍함을 폭로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정작 노예제를 경험한 제이콥스에게 노예제는 한 겹만 벗기면 드러나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다. 고두에 따르면 노예제의 실상을 담고 있는 “암흑의 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겹겹이 감싼 베일을 벗겨내야 하는데 문제는 그러한 실체를 백인들이 과연 들으려고 하는가이다. 북부인들은 한 꺼풀 벗긴 노예제의 패악은 들을 수 있지만 브렌트가 전하려는 여성노예가 겪는 “상스러운 세부사항”은 차마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sup>50)</sup> 그리고 그러한 상스러운 세부사항은 단순히 백인 남성과 흑인 여성의 성적 관계보다 더 치욕스럽고, 더 절박한 노예의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었다. 사회적인 압력과 침묵간의 관계를 살펴본 매처리(Pierre Machery)에 따르면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서는 결코 말해져서는 안 되는 무언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sup>51)</sup> 피시번(Katherine Fishburn) 역시 노예들은 자신들이 당한 부당한 현실을 드러내면서도 결국 “침묵이라는 피난처”로 도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말 자체가 결코 들려질 수 없기 때문임을 지적한다.<sup>52)</sup> 즉 분명히 밝혀야 할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필사적으로 이러한 이야기가 알려지기를 소원하면서도 모든 것을 그대로 드러내면 아예 읽힐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흑인여성작가는 필사적으로 “침묵”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브렌트가 보여준

49) Jacobs (1861), p. 4.

50) Goddu (1997), p. 4.

51) Pierre Machery (1978), *A Theory of Literary Production*. Routledge: London, p. 85.

52) Katherine Fishburn (1997), *The Problem of Embodiment in Early African American Narrative*. Greenwood Press: Westport, p. 115.

활력만큼이나 의아하고 당혹스러운 침묵은 노예여성이 겪는 고통의 깊이를 인정하지 않는 한 결코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노예제라는 부당한 상황에 놓여있는 인간의 가장 깊은 심연을 그대로 보여주는 제이콥스의 기법은 프랫(Casey Pratt)에 따르면 미국 로맨스 작가인 멜빌(Herman Melville)에 견줄 만큼 탁월한 것이다.<sup>53)</sup> 독자로 하여금 끊임없이 플린트와 샌즈라는 두 백인 남자와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하는 브렌트는 매끈한 서사로 정리될 수 없는 자신의 삶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차마 말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게 만든다.

#### 4. 흑인과의 연대, 백인과의 공감

동시대가 요구하는 여성의 정숙함과는 거리가 먼 ‘타락한 여성’으로 전락했음에도 브렌트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 특히 중산층 여성의 동정을 구하는 듯 하다가 그들을 혼계하는 듯한 브렌트의 태도는 주제넘어 보일 정도로 당차다. “나에게 동정을 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오 정숙한 독자여”라는 자기 겸양적인 발언도 잠시 브렌트는 북부 역시 도망노예들이 살 수 있을 만한 곳이 아님을 드러낸다, 북부인들은 남부의 실태를 잘 모르는데다가 남부인들에 의해 쉽게 속아 넘어가고 남부에서 자행되는 도덕적 타락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따라서 북부는 자유의 땅도 아니고, 오히려 남부의 사악한 제도를 흉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힘겹게 도망친 노예들을 되돌려 보내는 비열한 곳이다. 이처럼 남, 북부 모두 노예에게 침묵을 강요하며 철저히 혼자 감내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이지만 그녀의 탈출과 독립성을 뒷받침해준 것은 바

53) Casey Pratt (2014), ““These Things Took the Shape of Mystery”: *Incidents in the Life of a Slave Girl* as American Romance,” *African American Review* 47.1, p. 79.

로 가족과 흑인 공동체이다.

남부에는 백인의 문화와 가정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흑인 가정과 공동체가 공존한다. 단순히 노예제라는 체제 하에서 노예들은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인의 공동체 못지않은 그들만의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그러한 연대가 노예로 살아가는 개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브렌트처럼 노예면서 인간적인 권리를 찾는 무모한 일은 그녀를 어린 시절부터 인격체로 대한 아버지, 그리고 끊임없이 정신적, 감정적인 지주의 역할을 해준 할머니로 구성된 가족 공동체, 그녀의 도망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흑인공동체 덕분이다. 하지만 이때도 브렌트는 백인노예주와 흑인가정이라는 대립구도로 나아가지 않는다. 브렌트는 자신처럼 자유를 갈구하고 찾아가는 흑인들도 보여주지만 동시에 채찍에 무너진 노예들에 대한 은근한 비판도 잊지 않는다. 어떤 노예들은 채찍에 맞는 것이 두려워 주인이 아내와 딸을 범할 수 있게 슬그머니 물러서는가 하면,<sup>54)</sup> 농장의 노예들은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도 새로운 안주인이 가져올 지도 모를 작은 선물을 기대하면서 들뜬다.<sup>55)</sup> 물론 이때도 이것이 흑인의 열등감이나 의지의 박약이 아니라 백인들의 무자비한 채찍과 독설에 의한 것임을 못 박는다. 그럼에도 농장에서 자신의 자녀가 채찍에 맞아 신음해도 그 채찍에 이미 “길들여진” 어머니들은 감히 항의할 용기조차 없이 무기력하게 서 있을 뿐이다. 도대체 “얼마나 더 고통을 겪어야 그 정도까지 길들여 질 수 있는지”를 자문하는 브렌트는 더 많이 힘들어질 자신의 앞날에 대한 걱정과 함께 그렇게까지 길들여진 동료 흑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다.<sup>56)</sup>

남부의 흑인들이 채찍에 길들여져 있다면 북부의 흑인들 역시 피부색에 따른 차별에 익숙해져 있다. 울프(Andrea Powell Wolfe)는 제이콥스

54) Jacobs (1861), p. 44.

55) Jacobs (1861), p. 92.

56) Jacobs (1861), p. 87.

가 주된 독서대상으로 삼은 북부의 여성독자들뿐만 아니라 북부의 자유로운 흑인들을 각성시키려는 목소리를 섞어 놓았음을 “이중 목소리”(double voicedness)라고 정의한다.<sup>57)</sup> 실제로 브렌트가 인간답지 못한 대우를 받기는 북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이러한 차별의 첨병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흑인노동자들이라는 사실이다. 식당이나 열차에서 백인아이의 유모로서 백인칸에 탄 브렌트를 몰아세우는 것은 언제나 흑인들이다. 그러나 브렌트는 피부색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당연한’ 관습에 분노를 표하고 같은 돈을 내면서도 형편없는 대우를 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제이콥스는 자신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볼 뿐만 아니라, 온전한 인간을 물건, 동물로 치부하기 위해 사회 전 영역이 촘촘하게 얽혀서 공모하고 있음을 간파한다. 아무 것도 없는 피억압자인 브렌트가 보여주는 날카로운 통찰력은 대다수의 흑인들이 보여주는 절망적인 체념, 체제 속에서의 안주와는 대조된다. 특히 흑인차별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는 상류층 호텔에서 받은 차별에 불만을 품은 브렌트는 자신의 뜻을 전혀 굽히지 않음으로써 결국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되고 “모든 흑인남녀가 이렇게 한다면 결국 압제자의 발에 짓밟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결론 짓는다.<sup>58)</sup> 브렌트는 차별을 하는 백인들도 문제지만 차별 당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흑인들 역시 각성해야 함을 시사한다.

흑인들이 저항할 수 있는 원동력은 일차적으로는 흑인들끼리 소통함으로써 나온다. 브렌트의 이야기는 빈번하게 벌어지지만 흑인들끼리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내용이기에 같은 처지에 있는 흑인들의 유대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기능할 수 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정신적인 지원자인 할머니의 냉대와 저주를 야기하고, 노예들 사이에서도 쉬쉬하며 회피되고, 북부에 있는 사람들의 경멸을 받을 정도로 금기시 되는 내

57) Andrea Powell Wolfe (2008), “Double-Voicedness in “Incidents in the Life of a Slave Girl”: “Loud Talking” to a Northern Black Readership,” *ATQ* 22.3, pp. 523-525.

58) Jacobs (1861), p. 177.

용이다. 그럼에도 결국 손녀를 이해하고 뒷감당을 모두 해준 할머니, 물심양면으로 브렌트를 안전하게 피하도록 도와주는 덜햄(Durham) 목사, 자유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낸시(Nancy) 이모, 브렌트의 도주로 인해 온갖 박해를 당하면서도 기꺼이 감내하는 친척들, 수색병들에게도 겁먹지 않고 재치 있게 응수하는 요리사 베티(Betty)는 건강한 흑인연대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딸 엘렌(Ellen)을 통해 브렌트는 공감의 가능성도 보여준다. 엘렌에게 자신의 모진 인생을 고백했을 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엘렌은 오히려 엄마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동시에 자신의 처지를 물어보지 않고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도와준 흑인목사 덜햄 부인이 보여준 “여성의 공감에 의한 사려깊은 침묵”, 브렌트의 이야기를 들으며 보여주는 브루스 부인(Mrs. Bruce)의 “진실한 여성의 공감” 역시 브렌트를 감동시킨다.<sup>59)</sup> 브렌트는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어도 자신을 무조건 받아들여주는 덜햄 부인과 브루스 부인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독자의 공감을 구한다.

브루스 부인에게 털어놓는 브렌트의 솔직함은 믿을만한 독자이기만 하다면 그녀 역시 독자에게 기꺼이 말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북부여성들도 브루스 부인처럼 브렌트 같은 흑인이 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일단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잣대와는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 노예여성들의 특수한 현실을 고려할 때만 브렌트에게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부여성들은 남이 겪는 고통에 대해 눈물을 머금고 그저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 노예들이 당한 잔인한 행동 몇 개를 전해들었다고 해서 경험은커녕 상상조차 불가능한 노예제에 대해 다 알았다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북부 여성들은 브렌트와 같은 여성조차도 상술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무엇인가가 노예제 속에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야 한다. 즉 백인남성과의 성적경험에 대해 그녀를 단죄하기보

59) Jacobs (1861), p. 162; 180.

다는 활력과 기지 넘치는 브렌트가 왜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유독 침묵했어야 하는지를 고려해주길 브렌트는 희망한다.

하나의 제도로 일상생활과 동떨어져 존재하기 보다는 삶의 가장 은밀한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노예제는 단순히 선전구호나 값싼 동정으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터전 위에서 노력하고 그에 따르는 행동이 수반될 때 변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백인들이 적극적으로 위협과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흑인과의 연대는 북부의 백인여성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무런 대가없이 브렌트를 숨겨주고, 그녀를 편견 없이 아이의 유모로 고용하고, 그녀가 발각될 위기에 처할 때마다 법을 어겨가며 도움을 준 브루스 부인을 통해서 예시된다. 이를 통해 브렌트는 어렵지만 가능할 수도 있는 노예여성의 말하기와 북부의 백인 여성의 공감가능성을 열어둔다.

## 5. 나가며

21세기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노예제에 대한 상반된 해석은 노예제가 각자의 프리즘을 통해 굴절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그러한 노예제를 직접 겪은 노예의 이야기 역시 묘사된 것 너머의 무엇을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인간 이하로 취급된 흑인 노예여성이 긴 공백을 깨고 오랜 집필과정을 거쳐 내놓은 이야기들은 노예들이 처한 고통의 실상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노예로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이기를 거부당한 것이라면 그러한 노예가 “스스로 쓴 이야기”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한 “사건들”의 연속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면과 자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흑인 여성이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로 취급되기 쉬웠던 시대에 제이콥스는 역으로 이러한 형식을 통해 흑인 여성노예 스스로 쓸 수 있

는 가장 은밀한 이야기는 백인 중산층에게 허락된 자아 성장, 내적 발견과 같은 덕목이 아니라 결코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치부임을 강조한다. 특히 제이콥스는 여성노예로서 겪어야 했던 치욕적인 경험들을 기록함으로써 감히 들여다볼 수 없었던 포장된 남부가정의 기이하고도 잔인한 행태도 함께 전달해준다. 그러나 제이콥스의 위대함은 역사적인 사료보다 더 진실에 가까운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적나라하게 그려낸 노예제의 핵심을 독자는 여전히 모를 수도 있다는 자각을 일깨운 점에 있다. 노예들이 겪는 끔찍한 신체적인 고통에 더해 그들에게 허락된 언어로는 표현되지 않는 극단적인 절망감과 모멸감의 심연은 그녀의 필력으로는 끝내 전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노예들이 사는 삶의 현장을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노예들을 감정이 없는 동물처럼 학대하고, 노예들을 어리석고 열등한 인종이라고 무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양한 장치를 통해 몇 겹의 베일 뒤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노예제는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노예제와 노예의 삶을 북부의 여행객들이 한 번, 또는 며칠만 관찰하면 쉽게 파악해서 결론을 내릴 정도로 단순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노예제의 폐지 역시 결코 간단하지 않다. 따라서 작품은 브렌트가 아직까지 자신을 보호해 줄 편안한 집을 찾지 못하고 그것을 향해 노력하고 있는 미완으로 마무리된다. 이를 통해 실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일상화되고 뿌리 깊은 노예제가 단순히 자유를 찾거나 행복한 결혼으로 끝날 수 있는 손쉬운 제도가 아님을 보여준다. 오히려 제이콥스는 백인 독자가 흑인 작가로부터 온전하게 듣지 못해 의심하게 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노예의 복잡한 내면을 읽어주길 요청한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오랜 시간이 지나 사료와 기록을 통해 노예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21세기의 독자들에게도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온전하게 알 수 없는 노예제와 노예의 삶을 연구 과제로 남겨준다.

## 참고문헌

### 【자 료】

Jacobs, Harriet (1861), *Incidents in the Life of a Slave Girl* (ed. by Jean Fagan Yellin), Cambridge: Harvard UP.

### 【논 저】

여재혁(2003), 『“진정한 여성성”이란 무엇인가? 흑인 여성 노예의 “여성성”: 해리엇 제이콥스의 『흑인 여성 노예의 삶에서 생긴 사건들』을 중심으로』, 『현대영미소설』 10.2, 현대영미소설학회.

장기윤(2013), 『제이콥스의 『어느 노예 소녀의 삶에서 있었던 일들』 고딕으로 읽기』, 『미국학논집』 45.3, 한국아메리카학회.

Andrews, William L. (1986), *To Tell a Free Story: The First Century of Afro-American Autobiography, 1760-1865*, Urbana: Illinois UP.

Beardslee, Karen E. (1999), “Through Slave Culture’s Lens Comes the Abundant Source: Harriet A. Jacobs’s *Incidents in the Life of a Slave Girl*,” *African American Literature* 24.1.

Brown, Gillian, (1990), *Domestic Individualism: Imagining Self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Berkeley: California UP.

Fabian, Ann (2001), *The Unvarnished Truth: Personal Narratives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Fishburn, Katherine (1997), *The Problem of Embodiment in Early African American Narrative*. Greenwood Press: Westport.

Foreman, P. Gabrielle (1996), “Manifest in Signs: The Politics of Sex and Representation in *Incidents in the Life of a Slave Girl*,” *Harriet Jacobs and Incidents on the Life of a Slave Girl: New Critical Essays* (ed by Deborah M. Garfield & Rafia Zafar), New York: Cambridge UP.

Foster, Frances Smith (1996), “Resisting *Incidents*.” *Harriet Jacobs and Incidents on the Life of a Slave Girl: New Critical Essays* (ed by Deborah M. Garfield & Rafia Zafar), New York: Cambridge UP.

- Genovese, Eugene (1974), *Roll, Jordan, Roll: The World the Slaves Made*, New York: Vintage Books.
- Goddu, Teresa A (1997), *Gothic America: Narrative, History, and Nation*, New York: Columbia UP.
- Kim, Min Jung (2011), “The Troubled Discourse of Motherhood in Harriet Jacobs’ *Incidents in the Life of a Slave Girl: Written by Herself*,” *American Novels* 18.3.
- Kolchin, Peter (2004), “Eugene D. Genovese: Historian of Slavery,” *Radical History Review* 88.
- Macherey, Pierre (1978), *A Theory of Literary Production*. Routledge: London.
- Mills, Bruce (1992), “Lydia Maria Child and the Endings to Harriet Jacob’s *Incidents in the Life of a Slave Girl*,” *American Literature* 64.2.
- Olmsted, Frederick Law (1953), *The Cotton Kingdom: A Traveller’s Observations on Cotton and Slavery in the American Slave States. Based upon Three Former Volumes of Journeys and Investigations by the Same Author* (ed by Arthur M. Schlesinger), New York: Knopf.
- Olney, James (1985), ““I was born”: Slave Narratives, Their Status as Autobiography and as a Literature,” *The Slave’s Narratives* (ed by Davis, Charles T. and Henry Louis Gates, Jr.), Oxford: Oxford UP.
- Pratt, Casey (2014), ““These Things Took the Shape of Mystery”: *Incidents in the Life of a Slave Girl* as American Romance,” *African American Review* 47.1.
- Santamarina, Xiomara (2007), “Black Womanhood in North American Women’s Slave Narratives” *The Cambridge Companion to the African American Slave Narrative* (ed by Audrey Fisch), New York: Cambridge UP.
- Sartwell, Crispin (1998), *Act Like you Know: African-American Autobiography and White Ident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mith, Valerie (1987), *Self-Discovery and Authority in Afro-American Narrative*, Cambridge: Harvard UP.
- Stampp, Kenneth M. (1956), *The Peculiar Institution: Slavery in the Ante-Bellum South*, New York: Vintage Books.
- Warner, Anne Bradford (2008), “Harriet Jacobs at Home in *Incidents in the Life*

of a Slave Girl,” *Southern Quarterly* 45.3.

Wolfe, Andrea Powell (2008), “Double-Voicedness in “Incidents in the Life of a Slave Girl”: “Loud Talking” to a Northern Black Readership,” *ATQ* 22.3. 517-525.

Yellin, Jean Fagan (1981), “Written By Herself: Harriet Jacobs Slave Narrative,” *American Literature* 53.3.

원고 접수일: 2016년 4월 12일

심사 완료일: 2016년 4월 26일

게재 확정일: 2016년 4월 27일

ABSTRACT

---

Trying to Tell “the Two-fold Unspeakable” in Harriet  
Jacobs’s *Incidents in the Life of a Slave Girl*

Kim, LeeEun\*

This paper aims at investigating a slave girl struggling to give a true-to-life picture of the slavery against the silence forced upon her. In addition to the cruelties and physical tortures, the slaves were doubly bound because they were unable to confide in each other and form their own bond among themselves. Trying to appeal mainly to the Northern white female readers, Harriet Jacobs focuses on the sexual abuses on the slave women but creates a much different character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slave girl as a passive victim. Jacobs portrays Linda Brent who talks back and speaks up against her master, Dr. Flint. Furthermore, in order to escape seduction by her master, Brent enters into a sexual liaison with another white man, which would have made the contemporary genteel readers uncomfortable. In describing this affair Jacobs cannot depict the ‘unspeakable’ because she is incapable of finding appropriate expressions to convey her inner psychological turmoils which are often beyond the readers’ experience and imagination. Even though Jacobs tries

---

\*Lecturer,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her best to narrate the wrongs, evils and depravities of the slavery as much as possible, slavery is still beyond her description due to its indescribable abominations. Her book is valuable not merely because she records an accurate and vivid reality of the slavery, but because she awakens the readers to the extreme difficulties of grasping the truth of the slavery.